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국민건강보험, 6세 미만 ‘선천성 기형’ 증가

- 최근 4년간 6세 미만의 선천성 기형 환자 수가 '05년 59,782명에서 '08년 65,176명으로 연평균 3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성별로는 남아가 38,005명으로 연평균 3.2% 증가하였으며, 여아는 27,171명으로 연평균 2.8% 늘어남.
  - 선천성 기형 환자의 비중은 순환기계통, 소화기계통, 근육골격계통 등이 64.5%를 차지해 '05년 대비 1.0%p 감소하였으나,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'05년 893명에서 '08년 1,376명으로 연평균 15.5% 증가함.
- 4년간 진료비 추이는 '05년 271억원에서 '08년 373억원으로 연평균 11.5% 증가하였으며, 남아는 연평균 10.6% 늘어난 208억원, 여아는 연평균 12.7% 증가한 165억원을 기록함.
  -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'05년 6억원에서 '08년 14억원으로 연평균 33.3%(남아 22.3%, 여아 52.8%)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- 이러한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는 2006년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데 기인함.
  - 또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접근성에 있어서는 실제 내원일수 기준으로 상위 20%가 연평균 4.6% 증가한 데 반해 하위 20%는 연평균 17.6%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선천성 기형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및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임.

(6세 미만 ‘선천성 기형’ 환자 연평균 3.0% 증가,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, 7/21)